

【서평】

서평: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
- 도야와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 -

피에르 아도,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세진 옮김, 도서출판 이레, 2008.
Pierre Hadot, *Qu'est-ce que la philosophie antique?*, Paris: Editions Gallimard, 1995.

김 유 석

I

한국에 피에르 아도(Pierre Hadot, 1922~2010)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지금 소개하려는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가 처음 출판된 2008년 어간에 들어서야 그의 이름이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사실 그의 이름은 서양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 서양고대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낯선 게 사실이다. 우선 그가 프랑스 학자로서 영어권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주요 업적들이 플로티노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초기 기독교철학과 신비주의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들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소수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피에르 아도의 이름이 조금씩이나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서양고대철학에 대한 관심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사실 그의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에르 아도라는 인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피에르 아도는 프랑스의 고전문헌학자이자 철학사가이며, 또 그 자신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1922년 파리에서 태어났고, 철학사가인 장 발(Jean Wahl)과 신학자이며 플로티노스 전문가인 폴 앙리(Paul Henry)에게서 철학과 문학, 신학 등을 배운다. 1949년에서 1964년까지 국립과학연구소(CNRS) 연구원으로 재직한 뒤에, 그는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고등연구실무학교(EPHE)에서 “헬레니즘과 로마의 신학과 신비주의”의 담당 교수가 되었다. 1982년에는 미셸 푸코의 추천으로 콜레쥬 드 프랑스 교수로 선출되었고 그곳에서 1990년까지 강의하였으며, 1991년에는 은퇴와 함께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2010년 사망할 때까지 신플라톤주의와 플로티노스, 스토아주의, 그리고 초기 기독교철학 및 동방 신비주의와 관련하여 수많은 저술과 번역들을 남겼다. 또 철학자로서 그는 서양철학의 본령을 삶의 방식(le mode de vie)으로 파악하였고, 철학적 삶을 위한 길로서 정신 수련(exercice spirituel)이라는 주제에 깊이 천착하였다. 이제 살펴보게 될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의 핵심 내용 역시 아도의 이러한 지적 편력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사실 제목만 놓고 보면 이 책은 서양고대철학에 대한 개론서라는 인상을 준다. 여느 개론서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이 책의 저자 역시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이 책은 매우 쉽고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철학사를 그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헬레니즘과 고대 후기, 그리고 초기 기독교 철학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저자가 생각하는 고대철학의 정신이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쉽게 읽힌다고 해서 이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개론서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

우 강력한 주장과 철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도발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논쟁적인 글이기도 하다. 피에르 아도에 따르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즉,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학함이란 이론적 담론이나 논증 체계의 확립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과 선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생활양식의 완성을 향한 수련에 있다는 것이다.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아도가 자신의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고대철학사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II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인 “철학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와 그의 선행자들”에서는 철학 이전의 사유로부터 어떻게 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르러 철학이 확립되었는가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피에르 아도가 철학함의 진정한 의미를 초기 자연철학자들이나 소피스트들의 활동에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특히 플라톤의 『향연』에 묘사된 소크라테스의 말과 행동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전 지식인들의 활동 속에는 철학 자체에 대한 물음과 자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혜 사랑(philosophia)”이라는 말이 솔론과 같은 현인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는 하나, 아직 그들이 자신의 행위 자체를 성찰하고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다. 아도에 따르면, 법정에서 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던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내린 임무였다고 단언할 때, 그리고 플라톤이 『향연』에서 이미 지혜로운 신들은 지혜를 아쉬워하지 않은 반면,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는 인간들만이 지혜를 갈구한다(philosophein)고 주장할 때, 그때 비로소 엄밀한 의미에서의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철학을 자기 성찰과 이를 통한 삶의 방식과 태도로 규정한

뒤에, 피에르 아도는 제2부인 “생활양식으로서의 철학”에서, 이제는 이러한 성찰이 고대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저마다의 삶의 양식을 정하는 바탕이 되며, 다양한 이론적 담론들과 논증들 역시 그 자체로 추구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자기 수련을 행하게 되는 계기 내지는 과정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형상이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과 같이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보살핌이나 관조적인 삶을 이루어나가는 계기 혹은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원자론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우주론 역시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이자 처방으로 기능할 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철학의 목적은 이론이나 논증체계의 확립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 도야(陶冶, formation)에서 찾아질 수 있는 셈이다.

이렇듯 철학의 목적이 교육과 도야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도는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저런 학파들을 형성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퀴레네학파와 퀴니코스학파, 또 메가라학파 등 다양한 동아리를 형성했지만, 무엇보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세운 아카데미아와 튀케이온이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이 전통은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를 거쳐 고대 후기의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학파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요컨대, 철학은 세계에 대하여 고립된 개인의 사색과 이론적 숙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 영위했던 삶의 방식을 전수하고 전수받으며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도야와 관련하여 피에르 아도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정신 수련(exercice spirituel)이다. 아도는 다른 책에서 정신 수련을 “개인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자기 전화(transformation de soi)를 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고대 철학에서 정신 수련은 대개 불행이나 어려움을 준비하고

견디는 일종의 고행으로 나타나며, 예컨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고행을 매우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하지만 아도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자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아낙사고라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다. 아낙사고라스는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내가 가사자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예는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철학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의 연습”이라고 말한 사실이다. 요컨대, 고대의 철학자들은 신체 단련을 통하여 건강에 이를 수 있듯이, 영혼 역시 일정한 수련을 통해 건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렇게 서양고대철학의 역사를 자기완성을 위한 도야와 삶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뒤에, 아도는 제3부에 이르러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이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철학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제 자기 성찰과 완성은 신을 통한 구원으로 전화되며, 이를 위한 정신 수련은 종교적 영성 훈련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아도가 보기에 바로 이 전화야말로 오늘날의 철학이 고대 철학의 전통과 갈라지는 원인이 된다. 즉, 중세를 거치면서 철학의 자기 성찰적이고 정신훈련적인 측면을 기독교가 취하게 된 반면, 철학에는 순수 이론적 담론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가 철학에서 기대하는 엄밀하게 정합적인 논증들과 사유의 체계는 바로 근대의 산물로서, 이제 철학적 담론은 철학자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오늘날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쌓고 평상시 음주가무를 즐긴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의 전공과 그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스토아학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좋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논문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삶의 방식이 철학적 지식에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도의 관점대로라면, 그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모든 이론적 고찰들은 결국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성찰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철학이 곧 삶의 방식이라면, 삶과 유리된 이론은 더 이상 철학이 될 수 없는 셈이다.

고대에는 철학적 담론과 철학적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에르 아도 사상의 가장 독창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도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전 문헌들을 직접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전거를 찾아내었다. 하지만 서양고대철학사 전체를 삶의 방식과 태도, 자기완성을 위한 정신 수련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의 기원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찾고 있지만, 그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의 활동 역시 철학이라고 보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논리학을 배우지 않고서도 논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철학이 꼭 철학함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한다고 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적 담론이 궁극적으로는 철학적 삶을 지향한다고는 해도, 그것이 담론 자체가 지닌 이론적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나 자연학, 에피쿠로스학파의 자연학 등은 다른 어떤 목적을 전제할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론적 자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 훈련이라는 개념이 고대철학의 중심적인 용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밀한 이론체계라는 그늘에 가려진 철학의 또 다른 측면, 즉 생활양식의 측면을 부각시킨 점은 피에르 아도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는 그의 이러한 관점을 고대 철학사 속에서 탁월하게 재구성해낸 고대철학의 또 다른 안내서라 하겠다.

III

이제 번역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이 책은 2008년에 『고대철학

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도서출판 이레에서 나왔다. 일단 번역은 비교적 수월하게 읽힌다. 피에르 아도의 프랑스어가 문장이 워낙 깔끔하고 명료하기도 하지만, 역자 역시 번역문이 위화감 없이 읽히도록 곳곳에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매끄럽게 잘 읽힌다는 것과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고대 철학의 용어들과 인용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이미 고대에 근본적이었던 관념인 담론의 “심리인도적 가치(valeur psychagogique, 29쪽)”는 “영혼을 유혹하는 가치”라고 옮기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말은 소피스트와 같은 달변가들이 말로서 청중의 마음(psyche)을 유혹하여 이끌어내는(agein) 것을 말하며, 나중에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변증술을 영혼을 이끄는 기술(psychagogia)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 책의 1부 3장에서는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여러 차례 인용되는데(43쪽, 48~50쪽, 52~56쪽),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철학을 권유하는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마치 곁에 있는 친구에게 충고하듯이 ‘~하게’투로 번역한 것은 인용문을 검토하지 않은 증거로 보인다. 이것들은 모두 잘 읽히지만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역자는 아도의 핵심 개념인 “exercice spirituel”을 “영성 훈련”으로 번역했는데, 기독교가 아닌 고대철학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개념은 신체 단련에 대비된 “정신 수련” 정도로 옮기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철학적 삶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소절의 제목을 “자연과 종규에 따르는 삶”(158쪽)이라고 옮겼는데, 원문을 보니 “자연학과 기준론(la physique et la canonique)”이라고 번역했어야 맞다. 자연학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원자론에 기반한 자연철학을, 기준론은 그들의 인식론을 뜻한다.

같은 이름을 다르게 번역한 경우도 있다.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황금의 시(Les vers d'or)』가 어느 곳에서는 “황금의

음률”로(210쪽), 어느 곳에서는 “황금의 시(251쪽)”로 소개되고 있다.

철학의 용어 문제가 아니라 불어 문장의 번역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조건문을 번역할 때, 어떤 대목에서 역자는 일반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36쪽), 경우에 따라서는 저자의 의도를 간과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더 있지만, 서평이 정오표가 아닌 만큼 여기서 그치기로 하자. 매끄러운 번역에서 오역이나 부정확한 번역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도 없다. 특히 잘 읽히면 잘 읽힐수록 당혹감은 더 높아진다. 만일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나 이제 막 철학에 입문하려는 대학생이 그런 책을 읽는다면, 높은 “가독성”이 오히려 더 큰 해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가독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정확성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 빠지는 반전 하나. 이 책은 올해 절판되었다. 현재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출판사에 전화해보니 재고가 일부 남아있을 뿐이며, 재고를 소진하게 되면 더 찍어낼 계획이 없단다. 재고를 원하는 독자는 서점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8년이니, 출판 3년 만에 도서 시장에서 사라진 셈이다. 인문학의 가치를 전문 경영인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회의 수준을 감안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서평이 그 대상을 잃고 과녁 잃은 화살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 조금 허탈하다.